

천영평 신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의 다짐

“고향 전북 발전에 헌신할 것”

“전북 인구소멸 문제 대책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잘 사는 전북 만들기 헌신”

“저는 의지에서 살면서도 항상 제 고향 전북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고향에서 제 모든 역량을 쏟아 김관영 지사님을 모시고 전북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인 전북특별자치도 청 기획조정실장에 부임한 천영평 실장의 취임 일성이다.

지난 9일 자 인사혁신처 인사 발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부이사관)에 천영평 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이 임명되었다.

천 실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 졸업 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지방고시 6회에 합격하여 2001년 무주군청에서 민원실장을 시작으로 무주군민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

고시 합격자가 무주군청 민원실장으로 첫 발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민원인 우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우선 다양한 민원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



천영평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서 공직자로서 친절 봉사의 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민원인 친절 봉사에 대한 강의할 정도로 일취월장했다.

이후 2003년에는 전주교도소 직원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

서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민원실장을 하다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태권도원 유치에 적극 노력해 유치에 성공해 오늘날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의 성지가 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후 2005년에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겨 20여 년간 다양한 업무를 배워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행안부 일자리 경제과장으로 일할 때는 “전북 예산을 다른 곳보다 더 신경 쓰고 노력한 결과 더 많이 배정되게 돼 자신의 고장 전북에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주게 되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북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천 실장은 “전북의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김관영 지사를 도와 기업 유치를 통해 잘사는 전북 만들기에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20년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근무하고자 했는데 이제야 그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고향에서 근무하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전북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제 고향 전북에서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이 힘을 모아 김관영 지사를 모시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천 실장은 천상 뺨속까지 전북인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정책토론회

“노인복지 강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상 제시” 한목소리

도내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사진)은 지난 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선배 시민 지원 조례안’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안골노인복지관 박수진 관장 등 12명의 도내 노인복지관 관장들이 참가해 조례 제정 토론회와 함께 도내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했다.

박정희 의원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공동체 의

식이 증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관장은 “선배 시민은 나이 든 보통 사람으로 누구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주주의 의식 정착화를 통해 시민 참여 증대에 기여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희수 금강노인복지관 관장은 “선배 시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관장들은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상을 제시하며 노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정희 의원은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자기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교육청 파견 공무원 애로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사진)은 지난 9일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교육청 파견 공무원을 격려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관련 지침 등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도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서거석 도교육감과 운영팀 교육국장, 한금수 정책국장과 환담하고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파견

나간 직원(유초등특수교육과 유보통합담당 안전영 사무관, 김현욱 주무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올바른 역사교육”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2일 문화공간 하안양옥집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광복회 전북지회 이강안 지부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은경 이사장,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대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오은미·서난이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국비 기재부 심의 총력 대응”

김관영 도지사,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책 강화 강조 큐텐그룹 사태 지원대책 적극 홍보해 피해 최소화 지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가 12일 간부회의에서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재부 제1차 사업 심의는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실국장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심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재부에 대한 제언할 협상안도 사전에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심의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도내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전기차 지하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도 증빙부처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큐텐 그룹 사태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피



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긴급경영 안정 자금 등 금융 지원 및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기업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전북자치도의 기업친화적인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기업 유치 활동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국별 자체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내부 인식도 제고 및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실국

장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막바지 폭염과 관련하여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여름철 물놀이 상수기를 맞아 수상 안전사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만호 기자

야 6당,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야(野) 6당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형식 독립기념관장 인선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개혁당을 제외한 야당이 이번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김형식 관장은 뉴라이트야년 친일파라고 각을 세웠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시즌 II 영화따라클래식선책

2024.8.22(목) 7:30pm 고보연 Vn.임영주 Vc.박재은 Pf.이영신	
2024.8.23(금) 7:30pm 르네 마그리트 Vn.신아나 Vn.송동준 Vc.김주빈 Pf.홍진영 Pf.이영진 Pf.이영진	
2024.9.26(목) 7:30pm 김기창 & 박래현 Gf.김태훈 Pof.정승호 Pof.김지현 Pof.김정현	
2024.9.27(금) 7:30pm 천경자 Pf.이영진 Pf.이영진 Pf.이영진 Pf.이영진	
2024.10.24(목) 7:30pm 로드 루이스 Pf.장소원 Ten.나영우 Vn.김지수 Vc.정선영 Pf.이영진	
2024.10.25(금) 7:30pm 프리다 칼로 Vn.박찬호 Vc.강하연 Pf.이주영	
2024.11.29(금) 7:30pm 박안나 가수 지혜 Gf.이상욱 Dr.정병준 Cb.정효준	

2024. 8. 22 ~ 11. 29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 전석 22,000원
예약 | "영화따라 클래식 선책 II" 검색
문의 | 카카오톡 "문화공간이룸" ☎ 063. 223. 5323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룸
후원 | JT 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전주매일신문
연주 | 전주특별교육진흥원 나래코리아

본 공연은 (사)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2024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